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潛在된 無意識의 갈등표현 연구

-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 은 송

潛在된 無意識의 갈등표현 연구

-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이 재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 은 송

인 준 서

이은송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하나의 공통된 세계는 나의 생각 밖에서 사물적인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의 생각속에서 반성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인간을 보편으로 인도하는 생각의 힘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것’ 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잘 발달된 ‘자기’는 인격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좌우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인격을 성숙시켜 그 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게된다.¹⁾ 이렇게 되었을때 그 힘은, 인류 전부를 위해 유용한 목적으로 변화하게 되는것이다.

선사시대부터 인간들은 안전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해왔으며, 인간의 원초적 에너지(id)는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현대문명의 발전과 지식의 기반으로, 이해와 관용으로 수로를 틀어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윤택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각종 환경오염과 정신질환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어떤 일관된 인격의 통일성이 성숙되기도 전에 제각각 흩어져 갈등구조를 만들게 되었다.²⁾ 그렇게 해리³⁾된 정신현상은 인간삶의 의미목적 또한 흐리게 하여 삶의 방향성과 가치 또한 변모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인간의 원초적 에너지(id)인 무의식과 의식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속 인간과 연구자의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자기인식을 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1) 켈빈.s 홀,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1993), p69

2) 켈빈.s 홀,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1993), p42

3) 해리(解離) : 분자 따위의 화학종이나 물질이 용매, 다른 분자 따위로 분해되는 것, 혹은 풀려서 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인간육망의 본질(本質)⁴⁾은, 자유로우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흐름이고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카오스(Chaos)⁵⁾ 이미지이다. 정신(精神), 육체, 사고, 고통, 미적(美的)이고 조직적인 감정, 타인이나 개인의 마음상태를 직관하는 예술가의 노력은 삶에서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감각적인 부분을 채우며 삶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직관적 시각은 세계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창조적인 표현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미술의 표현은 손상되고 불안정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잠재(潛在)된 무의식세계를 의식의 표면(表面)위에 반영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정화되는 기능또한 갖고있기 때문이다. 인간 내면의 피상적인 표면(表面) 근저(根底)⁶⁾를 살펴보고, 그안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소를 조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조화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자신을 인식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비가시적(非可視的)세계인 무의식(無意識)에 집중하였고, 근원(根源)이 될 수 있는 내면세계를 통찰함으로써 의식(意識)의 표면위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얻어진 것들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구축하여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본질(本質) :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생명의 본질,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뜻한다. 실존(實存)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5) 카오스(Chaos) : 그리스어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뜻한다.

6) 근저(根底) : 사물의 뿌리나 밑바탕이 되는 기초.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 론..... | 1 |
| 1. 연구목적..... | 1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
| II. 본 론..... | 5 |
|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 5 |
| 1)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 5 |
| 2) 현대사회속의 갈등..... | 10 |
| 3) 갈등의 상징을 통한 조형적 표현..... | 13 |
| 2. 작품제작 방법 및 과정..... | 17 |
| 3. 작품분석..... | 21 |
| III. 결 론..... | 45 |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 |
|-----------------------------------|----|
| [작품 1] The nature modified 1..... | 21 |
| [작품 2] The nature modified 2..... | 24 |
| [작품 3] The nature modified 3..... | 27 |
| [작품 4] The nature modified 4..... | 30 |
| [작품 5] The nature modified 5..... | 33 |
| [작품 6] The nature modified 6..... | 36 |
| [작품 7] The nature modified 7..... | 39 |
| [작품 8] The nature modified 8..... | 42 |

I. 서론

1. 연구목적

예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중요한 요소는 주변의 환경과 시대적 상황,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상상력과 심상(心像)에 근거한다. 또한 대상(對象)을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유기적 관점과 직관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 정보, 감각들은 작가의 심상(心像)을 통하여 재해석 되며 가시적인 조형적 언어로 재창조된다.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진실에 도달하고자하는 의지의 표명(表明)⁷⁾인 것이다. 그 의지의 표현은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욕구이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과 정서적 안정의 만족감을 얻기 위함이다.

예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소리에 색이 비취지는 공감각인 색청(色聽)은 음에서 색채를 느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과 색채와의 관계를 감각의 공통성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⁸⁾

과거 수많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시각, 청각을 통해 인식된 이미지를 다시 미시세계인 심상(心像)을 통하여 표출해 내므로써 의식의 재시각화를 표현할 수 있었다.⁹⁾

미시세계의 표현에 있어선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영역이 존재한다. 그중 시의 표현을 고대인들은 일종의 신성한 광기라 불렀는데, 외형의 베일

7) 표명(表明)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8) [네이버 지식백과]

9) Ernst Hans Josef Gombrich, 『서양미술사』 (예경, 2002), p592

을 헤치고 나아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실에 도달하고자 했던 과거 신비주의자들에게서 그 정신을 찾아 볼 수 있다.

창조성이란 측정하거나 감정(鑑定)¹⁰⁾하기가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 그것은 하나의 영감, 직관이며 미적인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각의 발현(發現)¹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지성이 불충분하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이 미술의 전통, 이론, 개념, 감각과 심상, 경험과 기억에 의한 상상력의 총체적 표현이라는 것에 연구 범위를 두고 의미를 정립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에 표현된 정신적, 심리적, 유기적인 부분을 연구, 정리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정의를 구축하고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론의 정당성을 얻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좀 더 완전해 지고자 하는 삶의 역동적인 의지적 표현이다. 인간 삶의 문제 원인을 개개인의 내면에 집중하여 찾음으로써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국 인간 내면에 있음에, 집짓기 전에 땅을 고르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 유기적 세계인 무의식(無意識)을 깊이있게 고찰해 분석심리학적으로 갈등을 풀어내어 의식(意識)함으로써 정신적 균형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 감정(鑑定) :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11) 발현(發現) : 속에 있거나 숨은것이 밖으로 나타나게함. 혹은 그런 결과.

2. 연구내용 및 방법

현대적 의미에서 드로잉이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부터 현상학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모두를 말한다.¹²⁾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 정보는 잠재의식(潛在意識)¹³⁾에 머무르게 되고 다시금 현상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내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에 본인은 원초적 행위로서의 드로잉을 시작으로, 변형되어 표면위 가시적 세계로 드러나기 까지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해 보았다. 상상력의 요소로 작용하는 개인 무의식의 원천소재는 자율적인 이미지로 형상화 되기도 하고, 다듬어진 지성으로 인해 그 형상의 모습을 달리하며 변형되어 이미지화 되기도 한다. 그렇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어떻게 해체되고 분해되어 재조립됨으로써 원하는 모습을 갖춰가는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품의 드로잉표현은 이상적 심상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표현되어졌으며, 동시에 내일을 희망하는 생명력의 표현으로써 형상화되었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점의 집합인 드로잉의 자연스러운 리듬감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모습을 또렷이 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圖謨)한 것이다. 이는 개인고유의 형식(形式)으로써 진행되었지만 그 소통방법에 있어서, 표현되어진 조형언어가 개인에서 전체로 나아가 소통에 이르기까지의 역할이 가능한지도 연구해 보았다.

잠재된 영역을 표출함으로써 내적갈등 치유의 수단으로서 적용되기도 하

12) 이강욱, 『非可視 空間의 이미지 視覺化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3, p25

13) 잠재의식(潛在意識) :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과정.

는데 불필요한 잡념을 잊고 그림그리기에 집중함으로써 정신을 맑게하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성찰, 반성은 스스로를 마주봄으로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치유, 회복된 마음은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정서적 감흥을 불러 일으켜 스스로 위안이 되어주기도 하며 심성을 순화시켜 주기도 한다.

이같이 작업은 억눌린 다양한 욕구의 심리적 표출로 인한 방어수단임과 동시에 치유의 역할로서 기능하게 되는것이다. 관객은 그러한 세계를 같이 공감하게 되고 나눔으로써 현실의 삶을 환기시키기도 하며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Catharsis)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I. 본 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이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¹⁴⁾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 무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나뉘었다. 인간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본성과 보다 조화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의식이란 사고하는 것과 감정,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인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외향성 의식은 외부 및 객관적인 세계로 향하게 하고 내향성 의식은 내부 및 주관적인 세계로 향하게 한다.¹⁵⁾ 자기를 인식함으로써 내부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심층적인 부분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의식의 표면위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 보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것이다.

무의식이 의식화됨으로써 분명하게 자기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분리된 에너지는 좀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형되어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14)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을 넘어 활동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이다.

15) 켈빈.s 홀,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1993), p42

무의식은 잠재되어 억압된 욕구의 리비도(Libido)외에 삶의 모든 과정에서 생성되고 경험에서 얻어지는 기억들로 이루어진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삶에서 경험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들은 기억에 머무르게 되어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루게 된다.¹⁶⁾ 기쁨, 슬픔, 사랑, 위로, 분노, 좌절, 불안과 같은 감정적, 정서적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무의식속에 잠재되어지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의식화되어 자기실현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이런 ‘자기’의 발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자각(自覺)함으로써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집단무의식이라 할 수 있는 통일체에 가깝게 이르게 해줌으로써 보다 더 소통 가능하게 하고 조화롭게 한다.

집단무의식속에 생성되고 변화하는 생명력의 유기적 흐름의 표현을 드로잉으로써 시각화하고, 의식위로 드러냄으로써 변형하여 창조해 내는 것은 의식에 의한 무의식의 재구성적 표현이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떠오름으로써 습득, 경험, 지식에 의해 다듬어진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즉, 무의식은 동물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에 반해 그것을 자유의지로 변형, 창조해 내는 것은 의식에 의해 다듬어지고 지성화된 지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듬어진 지성으로 잠재능력의 발현에 이르게 되어 자기실현 할 수 있게 되면 내재된 욕구의 인식으로 보다 더 자유로운 창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새롭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독창적인 세계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의식에 가까워지기 전 단계를 전의식단계 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전의식단계 속에서는 억압된 무의식의 작용으로 인해 종종 두려움에 휩싸이게 됨으로, 고통스럽고 불안하여 불편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회피하게

16) 켈빈.s 홀,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1973), p74

된다. 정서적 진실을 스스로에게 은폐하는 양상(樣相)을 보이게 되며 억압, 투사, 합리화, 분열, 조증방어식의 자기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의식 단계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무의식에 억압(抑壓)된 요소를 타인에게 투영하며 전가시키게 되는데, 의식적 자아가 무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서 오는 불안, 조증심리상태를 보임으로써 분열된 모습으로 투사하여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왜곡되어 비뚤어진 이기심은 인간 자체내의 정서를 해치게 됨으로써 진정성(眞情性) 있는 소통을 불가피 하게 함으로써 정체성(正體性)의 의미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인간의 정체성(正體性)은 사회나 인간관계를 단절해서는 획득할 수 없으며, 무의식속 '이드(id)'¹⁷⁾가 현실세계속 여러 요소와 만나게 됨으로써 갈등하게 되는 요인들이 긴장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하여 지탱해 주기도 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¹⁸⁾는 불안을 '자아(ego)'¹⁹⁾에 대한 위협의 신호로 인식하였는데, 이성적 통제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죄의식, 양심의 가책을 도덕적 불안, 외적인 실제 위협에 의한 두려움을 현실적 불안이라 하였다. 이러한 불안들은 고통스럽고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 행복하지 않게 되며, 가능한 빨리 그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⁰⁾

17) 이드(id) : 개인의 무의식 속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원천. 도덕, 선악, 논리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 최초의 본능을 일컫는다. 성장하면서 이드(id)의 일부가 외부와 교류하게되어 자아(ego), 초자아(super ego)가 새로이 생성된다. 인간의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초적 욕구를 뜻한다.

18)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의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문예비평 등의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19) 자아(ego) : 사고, 감정, 의지 등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이를 통일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이드(id), 초자아(superego)와 함께 성격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현실 원리에 따라 이드의 원초적 욕망과 초자아의 양심을 조정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20)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물적 본능인 ‘이드(id)’는 파괴의 힘에서 이해라는 지적능력의 기반으로 수로를 틀 수가 있으며, 새로운 문명의 창조는 이러한 에너지를 승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드(id)’를 찾아내어 길들이고 적당한 방향을 세워 상승시키고, 승화시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를 발달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광범위한 에너지는 인류 전부를 위한 유용한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으며, 개인에서 전체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이 잘 잡힌 경우에는, 재판관인 ‘초자아(超自我, superego)’가 굳이 죄의식이나 두려움, 공포증, 강박관념과 같은 불안감에 스스로를 벌하게 될 이유가 없게되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겪게되는 사랑, 기쁨, 슬픔, 분노, 기대, 좌절, 허무, 상처들의 다양한 감정들은 지나고 나면 망각될 기억의 단편 조각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이루며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

표현한다는 것, 즉 살아간다는 것은, 담아내는 것이며 자신을 인식하여 자기확장으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식의 그릇을 키우고 드러냄으로써 나누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데 있어서 답이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것은 조화와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성숙된 ‘자기’는 그러한 힘을 조절해 나가는 방법을 체득해 나가는 것일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무한한 공간인 무의식 세계의 비가시적 공간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연구되어야 겠지만 세계에 대한 미래적인 인식으로, 현재는 유기체적 세계관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주의를 집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꿈들은 원시적인 무의식에 더 가까울 수 있으며, 창조는 그러한 원시적인 에너지를 아이디어로서 변형하고 의식, 재조정 하는 것을 지칭한다.

작가의 성격이나 현실안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의 기억과 경험, 현재를 이루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표현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하게 된다. 균형적인 인격형성의 의미로써, 자기를 이루는 많은 요소중 어떤부분이 성격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가는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선택의 영역에서 분별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과의 소통경로가 없어진다면 개인의 세계는 고립되어 딱히게 되고, 자유로운 세계로서 균형을 잘 이루지 않는다면 어느순간 무너지게 되며 해리된다. 잘 다듬고 구축이 된 다음에야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며 개인에서 전체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2) 현대사회속의 갈등

문명사회의 발전은 본능적인 인간화의 과정이었지만 현실사회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 삶의 목표와 이상으로 동일시 해버렸으며, 궁극적 인간 삶 가치 또한 변모되었다. 가치가 물질로 이동함과 동시에 외부적 현실과 내면 정서와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었고 피해의식과, 허무주의를 낳게되었다.

현대문명은 기계론적 사고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 왔고 인간에게 편리함과 윤택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환경오염 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고, 현대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인의 안정은 야만적인 '이드(id)'와 문명화된 '자아(ego)'의 힘의 균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을때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을 극복하고자 방법을 찾게되는데 존재로서의 삶의 측면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이기심만 채우며 본질을 등한시 하게 된다면 혼란의 이유가 되고 불안과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들마저 시장논리에 편입되어 삶의 체계를 건조하게 만들며 황폐화 시키는데 인간자신의 정신적인 탐구에 의미목적을 두고 인간성에 의해 자유가 자각(自覺)되어야 개인의 인권(人權)을 해치는일 없이 보다 소통가능하며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생활의 편의를 얼마나 도모하느냐와 같은 실질적인 활용도보다 개인의 기질(氣質)이나 인격, 정신영역의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정체성(正體性)을 잃어버리고 분열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갈등의 심층적인 문제점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겪게되는 내적 혼란(混亂)을 등한시 하고 표면적인 부분만을 쫓게되면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 다양한 갈등이 생성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나친 경쟁사회로 인해 자신의 삶에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일은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으며, 바로 눈앞에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었을때 많은 갈등의 원인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 상태에서의 익명성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가치혼란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긍정과 만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 혼란의 원인과 삶에 대한 자세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²¹⁾

인간은 평안한 상태에서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기에 자기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광기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인간의 가장 비합리적인 부분을 드러내게 된다.

심약하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서 오는 심리적 광기(狂氣)나, 자존감의 결여로 인한 갖가지 피해망상은 분열(分裂)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무너진 인격은 비뚤어진 이기심을 낳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남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자기 자신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부족한 자존감으로 분열된 자아는 타인에게 자신의 억압된 요소를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正體性)만을 채우려 한다. 죄책감, 도덕, 양심이 결여된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타인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듦으로서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다.

왜곡되어 비뚤어진 이기심은 개인정서를 해치게 됨으로써 진정성(眞情性) 있는 소통을 불가피 하게 만들고 정체성의 의미자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개인을 자기파멸로 이끌게 된다. “니체”는 현대를 가리켜 꿈과 이상을 상실

21) 김은정, 『21세기에 있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인간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2, p10

한 시대이며, 스스로를 경멸할 수조차 없는 가장 경멸할 만한 시대라고 비판한바 있다.²²⁾ 눈뜬 장님이 되어 뿌리없이 허공위를 날아다니며 현실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회복이 필요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변화로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認知)²³⁾할 수 있다. 자신의 취미와 심미안(審美眼)²⁴⁾에 들어맞는 것의 가치를 더 높이하면서, 취향이나 감각과 같은 관념(觀念)적이고 유동적인 것이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작가는 현실과 미시세계의 연결을 도모하여 그 중계자 역할을 한다. 독창적인 표현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움을 피하여 그 유희를 즐기기도 하지만 그 자유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혼란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현실세계 안에서의 잃어버린 정신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팎으로 그 균형을 이루어 조망(眺望)²⁵⁾하고자 한다.

22) www.neolook.net/

23) 인지(認知) : 판단능력을 통해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구별되고, 그것이 다른 몇가지 개념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을 규정하는 것.

24) 심미안(審美眼) :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안목.

25) 조망(眺望) : 먼곳을 바라봄, 혹은 그런 경치.

3) 갈등의 상징을 통한 조형적 표현

작가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요구와 욕구를 현실과 조화시키는 방법, 그러한 작업에 적합한 어떤 특성을 스스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마음에 존재하는 숨겨진 충동을 감지하는 통찰력(洞察力)과 감수성에 있어서나 자신의 무의식이 스스로 그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하는 용기에 있어서 그러하다. 감성에서 우러나는 정서적 효과나 지적이고 심미적인 쾌락을 생산해내는 많은 예술가들은 스스로 그 목소리를 내며, 불안과 공포,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이상적인 삶으로서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품은 세상과 연결되고 가까워지는 통로로서 작용하며, 그림에 나타난 숨어있는 고양이상으로 표현된 순수자아(純粹自我)는 현실과 본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드러내 주고 있다. 순수자아와 현실사이에서의 더 이상 단절이 아닌 이음과 나눔, 소통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보여줌으로써 희망하고 있는것이다. 순수자아(純粹自我)는 그 심상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의식하고 있는 자아(ego)로서 숨어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으며 표출되고자 하는 에너지는 조형적 표현임과 동시에 방어기제로서 복합적인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무의식의 잠재된 순수자아(純粹自我)와 표출되고자 하는 생명력의 에너지는 분리, 변형되어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무의식의 발현(發現)이 취하는 방향을 제한하는 힘들 가운데, 수치심이나 연민 그리고 사회에 의해 확립된 도덕적, 윤리적 체계와 책임감, 죄의식 등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갈등하는 요소가 생겨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히스테리적 양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한 불안감을 의식하게 되므로써 무의식의 에너지는 외부로 표출됨과 동시에 대치, 변형되어 자기방어로써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것이다.

즉, 주관적인 내면세계와 변형된 에너지의 조화로서, 자기실현에 이르기 위함이다. 의식되는 현상적 자아(ego)와의 갈등에서 오는 정신적 불안을 작업함으로 인해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스스로를 자각해, 보다 균형된 자아의 실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성찰과 반성으로써 나 자신과의 치열한 만남의 표현이기도 하다.

상처받기 쉬운 감수성이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을 내포한 본연의 모습을 인식하고 양면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변형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새롭게 재창조되어 좀 더 생산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주관적인 감성과 심상은 모호함으로 남겨져 의식하는 자아(ego)로서 감추어 표현되고, 드러나는 가시적(可視的) 이미지나 화면위의 이미지는 독자적 조형성으로 변형되어 표현되었다.

반복됨으로써 표현된 형상(形像)은, 미시세계(微視世界)를 인식하는 직관적 시각과 상상력으로 변형된 총체적 표현으로서 무의식속의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생명력의 발현이기도 하다. 무한공간으로 연결되어 생성되고 변화하여, 형상화된 생명의 표현체들은 2차원적 공간위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군집을 이루며 형성된다. 동시에 그안에 주관적 심상의 경계를 방어 심리로 드러내어 표현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체들은 시간성(時間性)²⁶⁾으로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표현

26) 시간성(時間性)은 시간에 대한 현존재의 관련성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시간성은 통상적 의미의 시간의 근원이다. 달리 말하면, 시간성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설의 '의식의 흐름'이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현존재의 존재인 심려가 갖는 시간적 성격이 시간성이다. 시간성은 통속적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근원적 시간'이라고도 명명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간성-하이데거 [Zeitlichkeit, temporality, 時間性]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된 자아(ego)는 현실과 미시세계의 중간쯤의 시선에 위치하게 된다. 세계를 인식하는 시선의 변화는 유기적 세계관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무한공간으로 연결해 주는 통로로서 작용한다. 무수히 많은 점의 집합체의 형태는 작가본인이 내면을 은유할 수 있는 모든 생명력과 에너지의 응축된 표현이며 리듬의 과정, 그 순간의 포착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미지의것을 찾아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로 드러내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의지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반대로 사회의 질서에 의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하면서 그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내적 평온함과 유연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발전은 두 원리의 순환적 반복과 조화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은 세계가 하나의 전체로 인식되고 부분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그물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렇게 무의식을 통찰하는 과정의 전의식은 의식의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더 분명해 지고 선명해지는 것이다.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²⁷⁾은 “예술은 열렬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술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다.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성이 불충분한 초감성(超感性)²⁸⁾이 존재하기도 하며, 직관은 지성외에 도취상태를 의미한다. 미를 설명하는 것은 직관을 좀더 생생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직관의 형상(形像)을 끄집어 내어 표현하는 것은 모사(模寫)가 아닌 내적인 울림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되는 정서를 체험, 공감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시공간을 넘나들며 정신의 고양됨과 만족감을 얻게 되기도 한다.

깊이 사유하고 승화(昇華)되어 치유된 마음에서 길어올려지는 창조적인 작품들 이나 언어들에선 향이 풀어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도

27)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 19세기 영국의 예술비평가.

28) 초감성(超感性) :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벗어나 보편적인 것보다 월등한것.

한다. 이렇게 자신과 세계를 안팎으로 살피며 사유하는 것은 개인적, 주관적인 감정과 세계와의 무한공간의 연결로서 인간 삶을 인식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통일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망은 내가 아닌 다른세계와 공감하고 나눔으로써 정서적 교감을 얻을 수 있는 총체적 경험의 표현이기도 하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²⁹⁾는 “이 세계에는 모든 개개의 현상이 지닌 공통적인 근원이 있으며 세계는 정신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본질의 우주이다.”라고 말했는데, 세계가 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고양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인간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³⁰⁾ 현대미술과 개념미술은 완성된 작품의 결과 보다는 그 과정의 몰입 자체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찾는다.

표층속에 잠재된 무의식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그자체내에 얻어지는 정신적 여운과 감각적 차원들의 고양됨에서 그 의미를 찾는것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또 하나의 소우주에 자유의지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좀더 안정되고 올바르게 나 자신을 구축하고 독립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9) 바실리아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 : 러시아 태생의 화가, 추상회화의 창시자로 사실적인 형태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단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루어냈다. 미술의 정신적인 가치와 색채에 대한 탐구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이론가 중 한사람으로 불리며,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재직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30) Wassily Kandinsky, 『점. 선. 면』 (열화당, 2000), p175

2. 작품제작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자는 색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심상(心像)을 드러내기 보다는 의미전달을 위하여 색의 상징적 의미로서 정신적인 부분의 역할로 기능하게 하였다. 색의 다양한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그 의미를 간결화 시켰으며, 생명력을 내포한 자연의 원초적, 순수성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채도와 명도가 높은 원색 위주로 사용하였다.

염색이 갖는 장점으로는 천의 따뜻한 성질과 다양함, 투명성, 빛의 투영을 들 수 있다. 색의 자연스러운 발색과 그에 따르는 유연성, 염료를 투명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맑음을 표현하는데 있어 최적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자의 작품을 표현하는데 한계성을 깨닫고 납(蠟)을 이용하여 염료의 번짐을 막는 납방염에서 색의 사용을 줄이고 방염의 제한없이 자유로이 선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Silk Screen)³¹⁾의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칫 선만을 이용하여 그려진 그림은 그 느낌이 가벼워 보일 수 있기에 산성염료(酸性染料)³²⁾의 사용대신 표백되지 않은 면(綿)³³⁾을 사용함으로써 채도를 표현하였다. 면(綿)위에 번짐없이 안착이 가능한 안료를 사용하여, 정서적으로 한국적인 느낌이 물어나도록 투박하게 표현하였다.

31) 실크스크린(Silk Screen) : 직물이나 종이의 틈새부분을 통하여 잉크나, 안료등을 통과시켜 표현하는 기법으로 판화 및 인쇄 등의 다양한 표현에 응용할 수 있는 표현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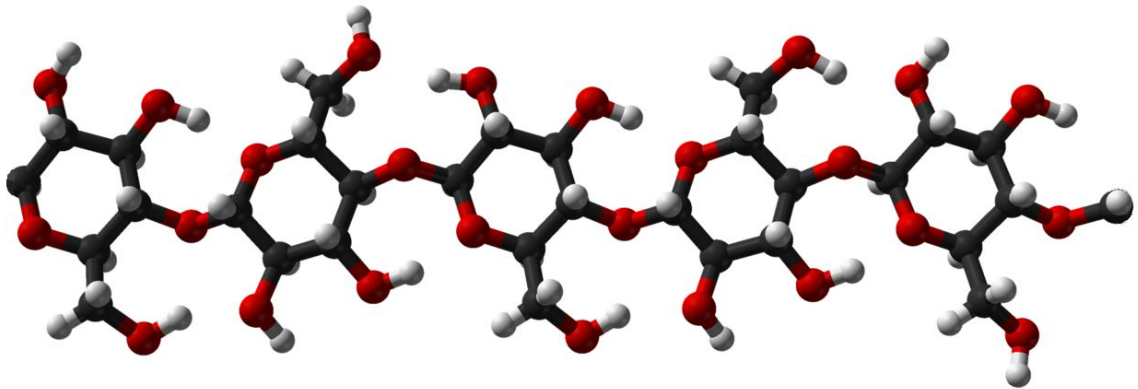
32) 산성염료(酸性染料) : 합성 유기화합물로 주로 동물성섬유인 모나 견종류의 섬유에 염색시 사용된다. 매염제나 정착제를 사용할시 면이나 레이온에도 염색이 가능하며, 수용성으로 일광 견뢰도가 높고 열기에 강하다. 색상이 밝고 채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33) 면(綿) : 무명이나 목화솜 따위를 원료로 쓴실.

선으로만 세밀하게 스케치를 그려나가기에 펜은 잉크가 끊김없는 liner를 쓰는게 중요하다.

그렇게 작품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棉)을 수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피염물의 염색준비를 위해서 행하는 공정으로 정련(Scouring)과정과 표백이 있다. 정련(Scouring)은 피염물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친수성을 좋게 하는 것을 말하며, 표백은 피염물의 자연적인 색소를 제거, 탈색하는 공정을 말한다. 진한색으로 염색할 때에는 표백을 생략하기도 한다.

면(綿)의 주성분은 셀룰로오스(Cellulose)로서 백색의 단섬유(Staple fiber)로 되어 있는 β -D-글루코스가 β -글루코시드결합을 통해 중합체를 이룬 다당류이며, 식물세포벽의 주 구성성분으로 유기화합물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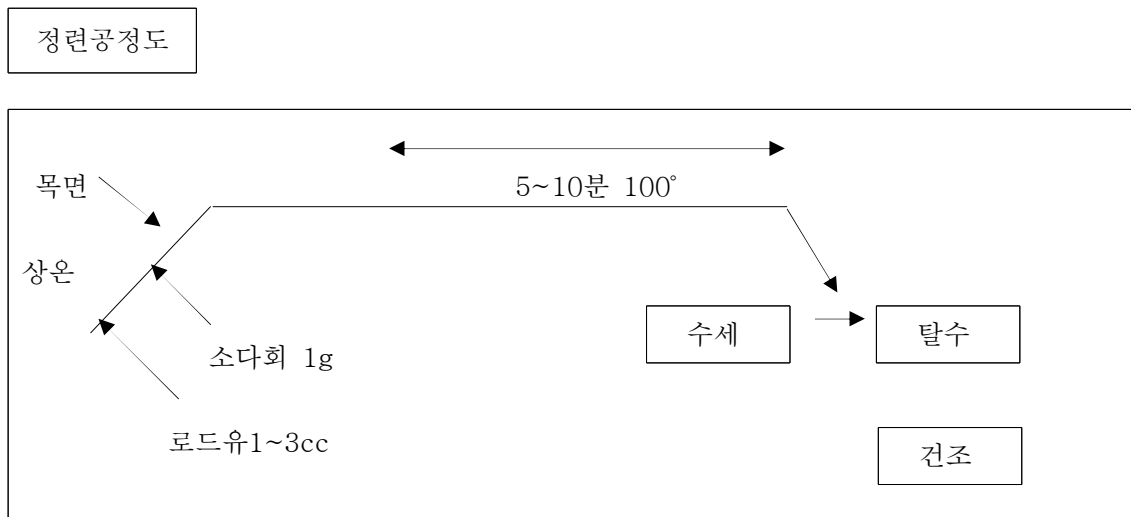


(그림1-1)

그밖에 약간의 불순물인 기름, 낱, 전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련을 하지 않은 면(綿)은 친수성이 낮아 균일한 색상과 깊은 색상의 염색이

34) 셀룰로오스(Cellulose) : (그림1-1) [네이버 지식백과]

불가능 하며, 면(綿)은 산에 약하고 알칼리에 강한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약알칼리액 또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정련한다.³⁵⁾



(그림1-2)

정련된 면(棉)위에 실크스크린(silkscreen)의 과정으로 선묘가 안착이 된 뒤에는 안료의 사용으로 염착하게 된다. 안료는 자신이 염착할 능력이 없고 수지(樹脂, resine)의 접착력에 의해 섬유에 부착된다. 염료처럼 섬유와의 결합이나 흡착에는 무관하므로 어느 섬유와도 좋은 안료착색이 된다. 이 착색은 고착이라 한다. 혼방이나 단섬유 직물에는 좋은 고착성을 나타내며 장섬유의 고밀도 직물에는 표면이 매끄럽고 접착면이 작아서 불량한 고착성이 나타난다. 특히 혼방직물과 면섬유에 날염이나 필묘염(筆描染) 및 공예염 하는데 편리한 염색재료가 된다.³⁶⁾ 실크스크린(silkscreen)에 선묘를 안착시키

35) 송변수, 『염색의 실제』, (미진사, 1991), p49

36) 송변수, 『염색의 실제』, (미진사, 1991), p168

기 전 과정으로 먼저 정방형 나무틀에 샤를 팽팽히 당겨 틀에 고정한뒤, 감광제를 바르고 마르게 되면 필름의 그린 그림을 전사시켜서 빛으로 구워내는 현상식(現像識) 이다. 제판된 스크린위에 잉크를 부어놓고 실크(silk)나, 면(綿)위를 스퀴지로 밀어내며 잉크가 스크린 망이 막히지 않은 부분만 통과되면서 잉크가 스미어 인쇄되는 방법이다. 스퀴지 대신 분무도 가능하며, 실크스크린(silkscreen)과 판화의 구분은 잉크층의 차이로 구분한다.

3. 작품 분석



[작품 1] The nature modified 1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1] The nature modified 1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screen, dye

크기 : 70 x 51cm

제작년도 : 2013

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자기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억압된 요소의 삶을 상대방에게 투영한다고 하였다.³⁷⁾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봄으로써 지각(知覺)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기억들을 타인의 모습에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거울을 들여다 보듯 모든 시각에 의해 ‘나’는 변형(變形)이 되는 것이다.

사람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류(誤謬)를 범하게 되고 잦은 실수를 하게되며, 왜곡하게 되는데 부분을 해석하고 전체를 직관하는 힘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경험과 의지, 또는 심미안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과정에서 상대적인 감정의 다름이나 다른 환경으로 인한 인식능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시각적 견해를 달리 하게 됨으로써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와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게 되어 방어하고 공격함으로써 그 불안심리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성적인 판단외에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감정적이든 심리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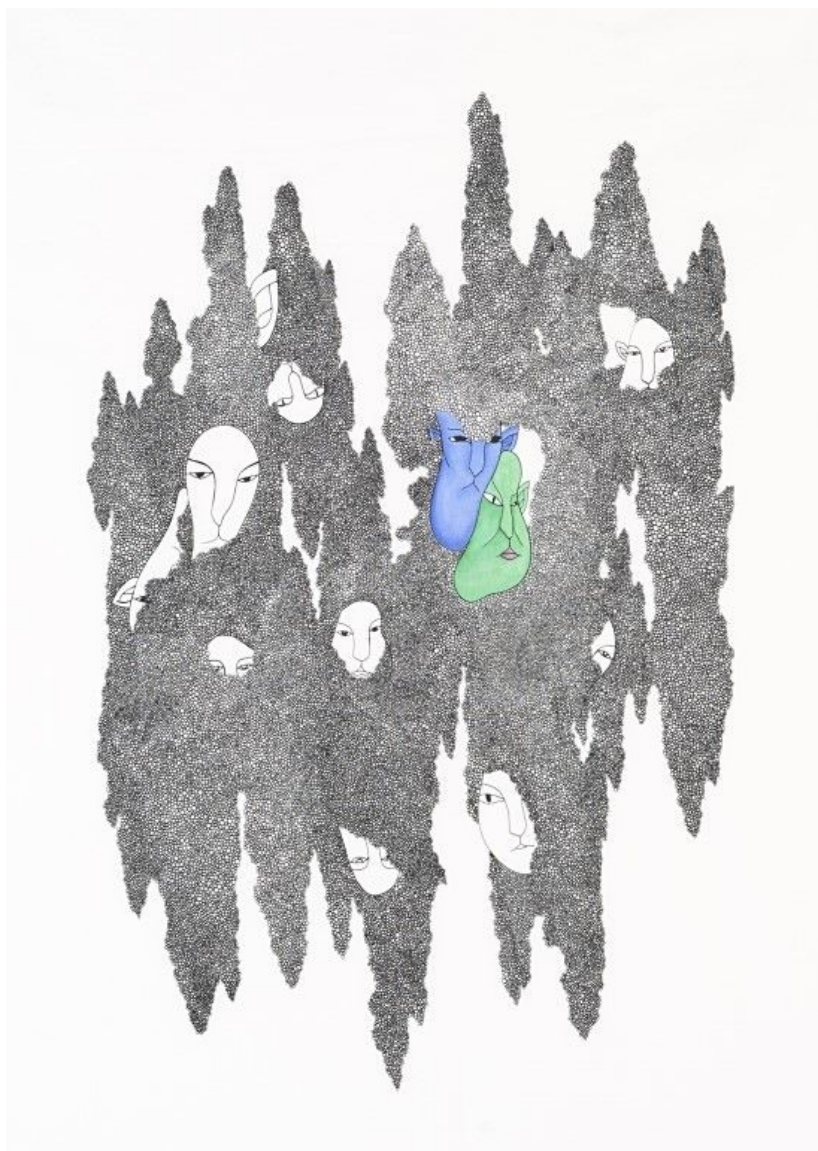
37) 켈빈.s 홀,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1973), p67

든 자극을 받게되고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여러 감정들에서 오는 불안 정서로 인해 그 모습이 왜곡되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 방어하거나, 갈등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모습으로써 변형(變形)되고 왜곡된 자아(ego)의 모습을 뒤튼린 거인상(像)으로 표현하였다. 안겨있는 아이는 내가 씻기고 먹이고 보살펴야할 또 하나의 내적상징으로서 표현되어졌으며, 더듬이는 본인이 의지하는 직관과 감성, 통찰력을 의미한다.

오른쪽으로 팔이 나와있는것은 그런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있는 본인을 의미하는데 그 모습의 형태를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고 관찰자로서 자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눈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사유하고 생각하는 얼굴의 형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동물의 얼굴상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우측으로 발이 나타나 있는것은 개인 성격의 객관적인 시각화이다.

전체로서 표현된 거인상(像)의 형태는 자아(ego)의 확장의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넘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한다.



[작품 2] The nature modified 2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2] The nature modified 2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screen, dye

크기 : 55 x 79cm

제작년도 : 2013

“이중적 사고는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가지 상반된 믿음을 유지하고, 양자를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한다.” (George Orwell, 1903-1950) 본인의 그림에 표현된 살이 찢은 형태의 이미지는 자연의 카오스(Chaos) 이미지를 해학적(諧謔的)으로 재해석해 표현한 것이며, 녹색은 자연의 숲을 상징한다.

마른형태의 얼굴은 사회적 도덕과 인간적 양심, 사고하는 생각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파란색의 상징적 의미는 이성(理性)³⁸과 판단력을 표현한 것인데 녹색의 이미지 윗부분에 위치함으로써 카오스(Chaos)를 억압, 심판하는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표현된 집합체의 형태는 내면의 숲을 의미하며, 그 주위를 이루고 있는 여러 얼굴의 형상(像)은 숲속에서 여행하며 마주하게 되는 갖가지 상념들의 표현이다.

잔은 채워야 비울 수 있듯이 내안의 숲속 여행의 끝을 보고나서야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과정을 마치게 되는것이다.

미흡해서 생기는 잦은 실수로 인해 소통에 오해가 생기게 되기도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감은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성장해 가며 삶의

38) 이성(理性) :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적 능력에 상응하여 이르는 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다.

무게를 체험하게 되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주변의 관계들에 의해 도움, 또는 영향을 받아가며 생각의 깊이를 더해나가는 것이다. 어려움에서 오는 고충(苦衷)을 넘어설 때에는 그에 따르는 불안과 고통이 있어 헤메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안의 이중적 사고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 3] The nature modified 3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3] The nature modified 3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screen, dye

크기 : 79 x 55cm

제작년도 : 2013

‘자기’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를 인지하기전에 생겨나는 자기분열에서 좀 더 나아가, 중심이 구축되고 난 후에는 사물들의 모습이 조금 더 뚜렷해지므로써 자기 자신을 보다 더 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된다. 즉, 성격이나 에너지를 나눠쓰는데서 오는 미세한 차이들을 인지해 정신이 해리되지 않고 다져짐으로서 곧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자기’는 선과악, 감성과 이성, 여성성과 남성성, 빛과 그림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기자신을 속박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게된다. ‘자기’는 주변의 상황이나 기분, 감정,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게 되기도 하는데, 내가 인지하는 다양한 요소로 어떠한 음을 만들어 내어 연주를 하느냐로 볼 수 있다. 이는 페르소나 라고 볼 수 없으며, 감정의 표현임과 동시에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연함이다.

비틀어져 표현된 얼굴의 형상은 나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는 억압, 갈등의 불안심리의 표현이다. 중심에는 그러한 요소들을 인지하며 성숙되어가는 ‘자기’가 있으며, 이는 참된 자아로서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작품에 쓰여진 색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청색은 정신의 청아함을 나타낸 것이며, 노랑색은 자연에 속해있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의미한다.

어두운 보랏빛 입술색의 의미는 삶의 가치를 정신에 두고 있음에 그 중심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 것이며, 동시에 중성적인 균형의 표현을 시각화한 것이다.



[작품 4] The nature modified 4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4] The nature modified 4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screen, dye

크기 : 62 x 89cm

제작년도 : 2013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되었을 때 주관은 객관적 시선으로 대치되고 현실안에 간혀 휘청거리게 된다. 혼란스러워 졌을 때의 나약함과 흔들림, 그속에서의 불안요소는 자연스레 그림에 투영 되어 표출되고 에너지는 나름의 극복 방법으로서 자기방어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척추의 형상을 띄고있으며 늑골의 모양을 변형한듯 양옆으로 지탱해주고 있는 형태는 몸의 중심인 척추를 지탱하듯, 나 자신의 중심을 받쳐주고 있는 형상의 표현이다. 정신에너지를 이루는 기억의 반영이며 좌측, 우측인 이성과 감정의 무의식적 반영이기도 하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중심부의 묵직함은 좌, 우 무의식의 압축된 에너지의 덩어리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우측에 콩팥의 형태를 드러내고 숨어있는 자아 모습의 오른쪽 형상은 심상의 경계를 두고 의식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좌측의 말발굽 모양의 형상은 에너지의 주춧돌 역할로써,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말 형상의 단순화로, 완성되어 압축된 힘의 원천으로 시각화된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의식이 성장하면서 내부와 외부사이에서의 갈등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숨어있는 자아(ego)의 노랑색의 의미는 원초적 순수성과 동심을 의미하는

데 기억을 승화한 이면에는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순수성이 있으며, 그런 내
안의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의지적 표현이다.



[작품 5] The nature modified 5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5] The nature modified 5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screen, dye

크기 : 80 x 109cm

제작년도 : 2013

밖으로 표출되고자 하는 에너지와 숨어있고 싶은 내적마음의 갈등표현이다. 기억을 더듬어 나의 눈을 멀게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보다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노력이며, 동시에 방어의 표현이기도 하다. 숨어있는, 또는 내면에 내재되어있는 정서나 감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신적 여유와 마음속 다뜻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관계들에서 시작되거나 소통의 불완전함으로 혹은, 본인 안의 열기설기 영킨 갈등의 복잡미묘한 감정들로 인해 마음이 편안하지 않게 되어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혼란한 마음안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리하고, 잠재된 무의식의 내적 갈등요소를 상상력으로 변형, 창조하여 승화, 표출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감을 갖고자한 것이다. 그렇게 다듬어진 내공간안에 머물고픈 순수자아와 변형된 에너지로서의 갈등요소를 보다 조화롭게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닥에 위치해 무념무상의 상태로 보여지는 사람의 형상은 심층적인 세계로 깊이 침잠되어 있었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낸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은, 무의식속을 살펴보고 인지하여 그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되며, 정신적 안정과 승화함으로써 정화하고 치유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순수자아를 향해 내딛어 가는 자아성찰 과정으로써의 내
딛음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품6] The nature modified 6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6] The nature modified 6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screen, dye

크기 : 53 x 62cm

제작년도 : 2013

그림속 탈의 형상으로 표현된 페르소나는 극중에서 인물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배우가 썼던 가면을 의미하는데, 인물과 인격도 같은 의미로 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이를 원형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생존 본능이라 하였다.

사회안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가며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고립이나 도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온전히 획득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한 관계 때문에, 혹은 정서적 교감의 부재로 인한 믿음과 신뢰성의 상실로 인해 페르소나가 작용하기도 하며 불안 때문에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와 상반되게 진실을 가리고 불안을 더하는 요소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이같이 작은 탈의 모습은 그에 따라 생성되는 또다른 나의 모습을 의미한다. 긍정의 의미로는 나눔이 되는데 외적인 기호가 관용화 되어 상징으로 나타남으로써 보다 쉽게 소통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의 의미로는 내적인 여운을 감추게 됨으로 진실을 가리게 되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에 의해 벽으로 둘러싸여 막혀있으며 페

르소나가 팽창되면 그 외면에 가려진 진실은 작아지게 된다.



[작품 7] The nature modified 7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7] The nature modified 7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screen, dye

크기 : 80 x 109cm

제작년도 : 2013

클레(Paul Klee, 1879-1940)는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계획할 수 없지만 그 작품이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게는 해야한다.”고 하였다.³⁹⁾ 이와같이 예술가는 순수이성에 의지하기 보다는 무의식과 상상력이 정신을 지배하도록 했을때에야 비로소 수면 밑바닥에 있는 진실한 울림을 표면위로 이끌어 내어 표현할 수 있다.

그곳에는 어떠한 편견이나 의심, 피해의식들이 자리잡을 곳이 없으며 예술가에게 있어 이러한 정신을 열망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관으로 인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추측한다.

과거 초현실주의자들 역시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것이 표면위로 떠올 수 있는 정신상태를 열망하였으며, 예술은 완전히 깨어있는 이성에 의해 생산될 수 없다고 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깨어있는 사고가 마비되면 우리들 내부에 숨어있는 유아성과 야만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학설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⁴⁰⁾

낭만주의자들 역시 이성적인 사유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는 크게 깨달을 수 없으며, 자신의 감수성은 선(禪)의 교의중 일부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정신에는 절대적 믿음과 순진한 경이감이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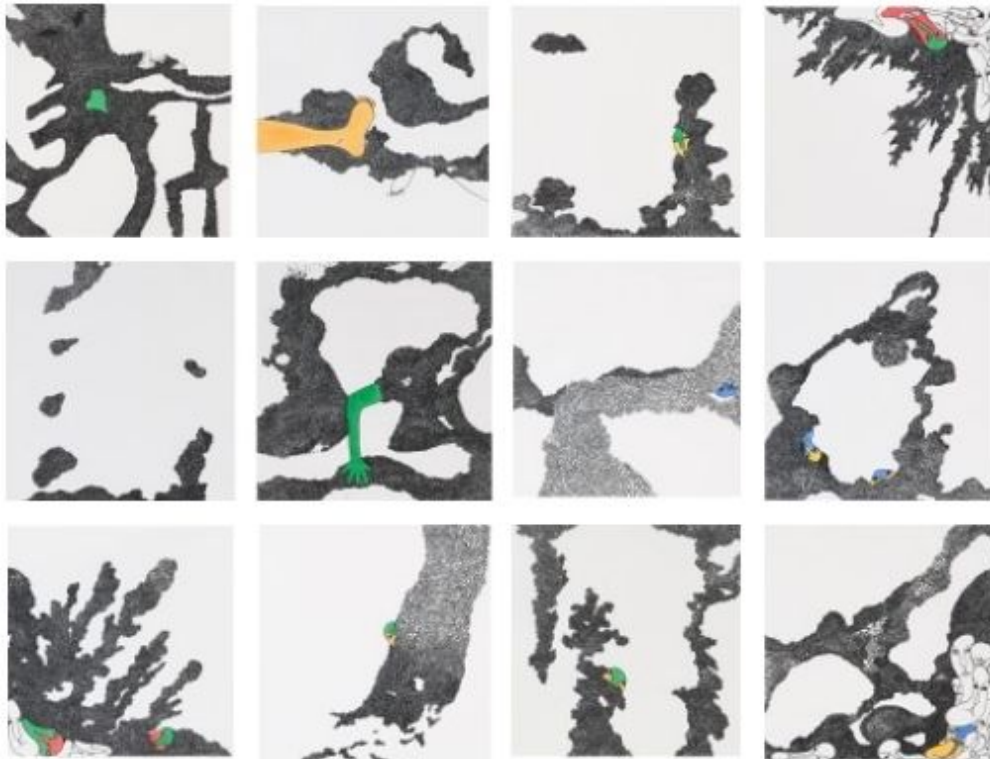
39) Ernst Hans Josef Gombrich, 『서양미술사』 (예경, 2002), p592

40) Ernst Hans Josef Gombrich, 『서양미술사』 (예경, 2002), p591

며, 그 마음을 잃지않고 계속 숨을 쉬어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내적 경이로움을 인식하게 하는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것이다.

작품에 표현된 녹색의 상징적 의미는 자연을 나타내며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호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는 내면적으로 승화되어 정화된 맑은 물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어진 생명력은 유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세한 감각들로 표현되어진 형태는 사람들과 상호연관 맺으며, 변화와 울림으로 다시금 자신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소통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보다 질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 선의 추구를 깨닫고 외부와 내부 세계에서의 동일한 기본리듬과 자연 자체의 리듬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과학적 기록이 아닌 인간의, 인류의 자유스러움이며 보다 더 유연하고 아름답게 창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내면적 울림을 표현하고, 표출하여 자아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와는 상반되게 숨어있는 작은 자아상은 내안의 내면적 자아(ego)를 의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수단이다.



[작품 8] The nature modified 8
Cotton, pigment silkscreen, dye, 2013

[작품 8] The nature modified 8

재료 : Cotton, pigment

기법 : silk screen, dye

크기 : each 22 x 22cm

제작년도 : 2013

마음의 공간은 종종 작은 악의 씨앗으로 인해 어둠에 휩싸이거나 피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적막함 마저 감도는 곳에서 공허와 씨름을 하며 내일을 희망할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게 되고 그 정적을 깨고나와 내일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본질의 나와, 내가 원하는 나를 갖는 방법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걷는것이다.

자연은 '솔리튜드(solitude)'인데 그 뜻은 고독, 외로움이다.

“흐르지도 않는 농도 짙은 물마냥..

내안 가득한 검은 기운이 진저리 날만큼

숨막히던 그길이,

비밀이 숨어있었음을,

그렇게 돌고돌아, 한뼘 더 자라게 한 내길이,

공존의 지혜를 배우게 한다..”

- 작가노트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삶의 부정성이나 어둠, 허무주의

를 긍정과 희망으로 바꿔주고, 마음에 빛을 내려앉게 해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만이 따뜻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아픈마음을 감싸준다.

서로같이 성장하게 되고 헤매일때 바로잡아주어 앞을 밝혀주는 빛으로써 내일의 길로 인도한다. 생명은 향일성(向日性)을 추구하고,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의 삶 안에 빛이 바래 퇴색되지 않고 마음속의 빛을 간직하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어둠 없는 빛의 밝음을 느낄 수 없으며, 달의 멧을 모르는 자는 빛의 행복을 온전히 다 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III. 결 론

학문을 전개하는데 있어 어떤 기본적 바탕이 될만한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타당성을 얻겠지만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 큰 틀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체, 재정비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을 가두는 것과도 같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적 사고에 끈을 묶는 것과도 같을것이다.

자연은 자연 그 자체로서 의미있으며 인간은 그 자연을 느끼게 되고 감흥하고 표현함으로써 그 자연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자연속에서 자신의 주위를 이루고 일어나는 모든일들과 연관 맺고 영향을 받으며 창조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하게됨으로써 발전하여 삶의 모습을 명료화 시키게 되는 것이다.

보다 완전한 삶을 꿈꾸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주며, 그것을 가꾸고 발전시켜 현실삶안에 조화시키며 정신적인 성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것이다.

우리를 어우르고 있는 모든 존재를 자연 안에서 찾으며, 스스로 존재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서 자연을 인식하여 질서를 찾아야 한다. 본질을 하나의 동적인 총체로서 이해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성되는 자연과 우주의 일부로서 자기자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가시적 세계인 미시세계와 가시적 세계인 현상적 세계를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총체적으로 남은 여운과 통합된 자아의 중심과의 만남이며 균형이다.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차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여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소산물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작업은 자기자신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며, 세상과의 연결통로로서 보다 넓게 생각하여 자신과 삶을 치유하고 갈등에서 벗어나 공존해 나가는 수단으로써 작용되기도 한다.

무의식적인 흐름은 곧 내면의 자연이며, 그런 흐름의 변형을 통한 조형적 재구성의 표현은,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나눌 수 있게되고, 그 나눔은 다시금 새로운 영감으로 작용하여 이롭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 이로움이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며 채움이고, 누군가에게겐 비움이며 성장일 것이다. 누군가에게겐 치유와 재생이며 새로운 삶을 꿈꾸게할 그 무엇일 것이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잘 가꿔진 마음안에 살아 숨쉬고 있을때 가능하며, 주변인들과의 믿음있는 관계속에서 꽃피우게 되었을때 찾게될 수 있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삶 자체를 재조명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기대도 하는 바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작품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 그러한 표현들을 시각화 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좀더 유연하게 자각, 연구, 관찰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摸索)해야 할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칸딘스키, 『점. 선. 면』 열화당, 2000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0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1879
송번수, 『염색의 실재』 미진사, 1991
이재선, 『한국의 현대염색』 미술문화, 2001
프리츠포 카프라,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79
켈빈.s 홀,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1993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응진지식하우스, 2009
라켈베이커, 『프로이트심리학_자기를찾은사람』 학문과사상사, 1984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1997
E.H 콰브리치, 『서양미술사』 예경, 2002
토니 고드프리, 『개념미술』 한길아트, 2005
한국미술연구소, 서울여대조형연구소공편, 『드로잉』 시공사, 2007
루이즈고던, 『인체해부와 묘사법』 미진사, 2006

[정기간행물]

CRAFT(2009.11-2010.10)

ART PRICE(2015.3-5)

[학위논문]

이강욱, 『비가시 공간의 이미지 시각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박소현, 『무의식의 이중적 자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현, 『무의식 개념을 통해 본 무용의 창조성』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김은정, 『21세기에 있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인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12

[web]

www.savinamuseum.com/

www.neolook.net/

www.johyungallery.com/

www.nationalgeographic.com/

www.dailyserving.com/

ABSTRACT

Potential conflicts expression of the unconscious research

- Focus on Principal work -

Lee, Eun Song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paper, and establish the basic concepts of huma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by looking at the unconscious to the inner surface potential was explored in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Hannah. By focusing on the unconscious invisible world a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that recognizes itself, it almost certainly exposed above the surface of the conscious party by insight into the inner world that can be a source.

By exploring your work is invisible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microscopic world were acting as expressed in the will to reach the truth. In a quest to explore this potential factors that unconsciousness conflict in modern society, we analyzed the causes of conflict and human researchers. And let the conflict by taking conscious elements that are inherent in the psychoanalytic will have to promote the stability of mind and mental

balance.

Analysis ones obtained in the process was to establish by cleanup. And as a psychological method to visualize such representation, how are mentally affected parts are dismantled and disassembled goes equipped with a desired look by reassembling analyzed by focusing on your work. Furthermore, individual reports closely examine the process until the traffic reaches the full representation Formative as the original language, studied the directional move forward, we have seen awareness by explor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It is the dream of a more perfect life, gives an important impetus're all human beings live, to cultivate harmony in real life sikimyeo develop it and move forward towards the spiritual growth. All beings carrying Ouman us finds in nature, it is to present themselves and to recognize the natural changes as to the process of finding and order.

In that sense, the chance to try refocus the nature and human life itself and by working, I would expect that you can fill the role as someone new hope.

And in the future to develop their work process to build a portfolio, more flexible ways to study them visualize such representation, the reporter sought to observe the development direction.